

##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지영\* · 임정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Jung, Ji-Young\* · Lim, JungHa\*\*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Four hundred fift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participated. Temperament,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es, t-test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ego-resilience. Adolescents' ego-resilie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tivity level and persistence in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rigidity in temperament. Furthermore, gender,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f class teacher and close friends significantly predicted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Key words:**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기질(temperament),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청소년(adolescent)

---

1) 교신저자: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7, Fax: 02-927-7934, E-mail: jhlim@korea.ac.kr

2)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정서, 인지 및 지적 발달은 아동기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확대된 교우관계, 이성문제,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복잡한 적응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장휘숙, 1993). 청소년기에는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 공부에 대한 압력, 부모의 맹목적인 기대 등으로 다른 시기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유수현, 1996). 더군다나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비행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임은희, 남현주, 2008).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이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실제로 발달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Garmezy, 1983; Rutter, 1985).

최근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변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자아탄력성은 그 대표적 변인 중 하나이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간다(Luthar, 1991).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여도 심리적 어려움이나 문제 행동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신현숙, 구본용, 2001).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게 하고 상황에 잘 적응하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탄력성

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개정·발행된 가정교과서의 ‘청소년 관리’ 단원에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정교과 교육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과 직결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교과 내용 지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취약 청소년이나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가정교과 수업의 대상은 대부분 일반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일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나아가 최근 청소년의 부적응은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뿐 아니라 부모가 모두 있는 중류층 가정에게로까지 확산되어 표출되고 있다(고정자, 2003). 그러므로 특정 취약집단의 청소년들 외에도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Emery & Forehand, 1996; Kirby & Fraser,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에서 각각의 변인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권지은, 2002). 성별에 따라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가 상이하며, 남·여 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박연성, 현은민, 2009), 자아탄력성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에 각각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교과 내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성별 중에서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은 아동 연구에서 정신 병리를 이해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는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안적으로는 질병, 우울, 역경 등에서 꾸준히 회복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Garmezy, 1983). 탄력성은 Block과 Block(1980)에 의해 초기 성격구조로 개념화되었고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명명되었다. Block과 Kremen(1996)은 탄력성이 단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한다면, 자아탄력성은 상황에 따라 긴장이나 인내의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을 의미하며 탄력성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기술하였다.

최근 들어 청소년은 건전한 사회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공부에 대한 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 및 직업에 대한 준비 등으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위휘, 2005; 유수현, 1996).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비행, 폭력, 약물남용, 흡연, 자살, 학업동기의 상실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김교현, 전경구, 1993).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내적인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적응 능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적응 등과 관련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 연구의 예를 들면, Werner와 Smith(1982)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매우 활동적이며, 내적 통제를 잘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며, 책임감을 지니고,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Johnson 등(2005)은 16세에 측정된 개인의 자아탄력성은 4년 후 청소년들의 정신과적 장애, 교육적·직업적 문제,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그리고 범죄행동에 대한 위험률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두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도 정신과적 장애로부터의 보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구자은(2000)은 자아탄력성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이라고 보았으며 김민정(2005)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적응적이고, 정서나 행동문제가 더 적으며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성경 등(2004)에 따르면 부정적인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보다 적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박지아와 유성경(2003)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사람에 대해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의 원만한 적응과 건전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다.

### 2. 기질과 자아탄력성

기질은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행동방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지만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다(Thomas & Chess, 1977). 기질은 개인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람이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Garney, 1985) 환경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동일할지라도 청소년의 기질에 따라 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식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기질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질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한 Thomas와 Chess (1977)는 기질의 구성요소를 활동 수준, 규칙성, 접근 또는 철회, 순응성, 반응역, 반응 강도, 기분, 주의전환성, 주의집중과 끈기의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Buss와 Plomin(1975)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순재(1996)는 기질의 구성요인을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기질의 구성요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 신체 움직임이나 활동수준, 기분 또는 정서, 자극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성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기질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Emery와 Forehand(1996)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들 중 개인적 요인으로 활동적 기질과 성별을 제시하였다. 즉 활동적 기질을 가진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김승경, 2004; 임지영, 2001)에서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보호요인 중 기질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기질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기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성이며 아동기 탄력성과 관련됨을 반영할 때, 청소년의 기질은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가족적 요인에는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이 포함된다(Emery & Forehand, 1996).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응집성(남영옥, 김재한, 2003),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양국선, 장성숙, 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김기영, 2009) 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들 요인은 가족의 부분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건강성은 가족

을 전체성(wholeness)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념이다(유영주, 2006).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 내에서의 감정, 사랑, 경계, 패러다임, 규칙, 일상생활,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관리 같은 가족과정과 가족관계에 중심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종전에 다루어진 가족적 요인보다 더 포괄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수와 노성덕(2003)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화목과 자아탄력성 간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민선(2005)은 청소년이 위험사건을 겪은 이후 가족친밀감의 이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으며, 이영미 등(2004)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간 갈등과 자아탄력성이 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 화목이 자아탄력성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들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듯이 가족건강성은 가족적 요인을 대표하여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1970년대 중반에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과 정보적 도움, 물질적 도움, 평가적 도움을 모두 포함한다(박지원, 1985). 즉, 사회적 지원란,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관심, 정보 물질적 원조와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혜, 2009).

사회적 지지는 지원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지원원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지 활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친구, 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의 총체이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선정된 지원원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Furman(1987)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 형제자매, 조부모, 교사를, Dubow와 Ulman(1989)은 가족, 교사, 또래를 중요한 지지제공자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또래, 교사 등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되고 있다(한미현,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에서 가족 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의 지지를 제외한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plan, Robbins와 Martin(1983)은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정서적 위기, 행동의 부적응,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보고하였다.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생활 속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나아가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족 내 위협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이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낸다는 보고가 있으며(Larsen, Branje, Valk, & Meeus, 2007),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서명희, 2004). 이는 청소년기에 영향력 있는 주위 환경의 지지가 청소년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희경, 2006)에서는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 모두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수정, 2008)도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친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3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각 학교마다 3~4학급을 선택하여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48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미완성된 경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50명 중 중학교 남학생 69명, 중학교 여학생 105명<sup>3)</sup>, 고등학교 남학생 147명, 고등학교 여학생 12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16.7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기질 척도

청소년의 기질은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수정 보완한 김순재(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DOTS-R)는 10개 차원의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순재(1996)는 이 중에서 수면시 활동수준, 수면의 규칙성, 섭식의 규칙성, 일상습관의 규칙성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김순재(1996)는 나머지 6개 차원의 34문항만을 포함하여 경직성, 지속성, 산만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을 이용해 요인분석 한 결과 각 요인으로 추출된 문항이 김순재(1996)와 다르게 나타났다. 김순재의 연구(1996)에서 경직성과 지속성에 포함되어있던 '잘 웃는다' '명랑하다' 등의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모두 산만성에 포함되었다. 본 연

2) 본 연구에서는 표본인 청소년을 만 13~19세로 선정하고, 중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학년은 진학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되고, 3학년은 입시 부담감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중학교마다 각 4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에서의 한 반의 남녀비율이나, 남학교와 여학교에서 반마다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학생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0)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216	48.0	부	전문직	33	8.7
	여	234	52.0		경영관리직	44	9.8
학 교 급	중학교	174	38.7		전문기술직	41	9.1
	고등학교	276	61.3		사무직	116	25.8
연 령	14세	20	4.4		자영업	81	18.0
	15세	152	33.8		생산/기능직	90	20.0
	17세	40	8.9		판매/서비스직	12	2.7
	18세	235	52.2		주부	-	-
	19세	3	0.7		무직	5	1.1
월 용 돈	1만원 미만	72	16.0		부모 직업	기타	22
	1~3만원 미만	135	30.0	전문직		11	2.4
	3~5만원 미만	143	31.8	경영관리직	11	2.4	
	5~7만원 미만	70	15.6	전문기술직	37	8.2	
	7만원 이상	30	6.7	사무직	60	13.3	
학업성적	상위 10%	52	11.6	모	자영업	47	10.4
	중상위 25%	104	23.1		생산/기능직	29	6.4
	중위 50%	164	36.4		판매/서비스직	68	15.1
	중하위 75%	103	22.9		주부	171	38.0
	하위 90%	27	6.0		무직	-	-
부	고졸 이하	230	51.1	기타	16	3.6	
	전문대졸	32	7.1	생활수준	상위	8	1.8
	대졸	154	34.2		중상위	67	14.9
대학원졸 이상	34	7.6	중위		274	60.9	
부모 학력	고졸 이하	284	63.1		중하위	86	19.1
	전문대졸	25	5.6		하위	15	3.3
모	대졸	119	26.4				
	대학원졸 이상	22	4.9				

구결과 산만성으로 추출된 문항은 ‘여러 가지 일에 곧 잘 웃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편이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편이다’ ‘몸을 많이 움직인다’ 등 이었다. 따라서 DOTS-R의 기질차원 중에서 ‘일반적 활동 수준’의 요인명에 근거하여 요인의 명칭을 활동성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총 34문항 중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낮은 한 문항(17번)은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질의 세 가지 요인은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으로 명명되었고, 이들 세 요인은 기질 전체변량의 35.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직성(10문항)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을 말한다. 지속성(8문항)은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며, 이때는 다른 것으

로 주의 이동이 어려운 성향을 말한다. 활동성(15문항)은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보이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잘 웃는 성향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적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경직성 .82, 지속성 .78, 활동성 .74로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성척도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윤세은(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되어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다.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다음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족원 간의 유대(10문항)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보내기, 가정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원간 가치체계공유(9문항)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원이 모두 가족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동의하는지, 혹은 연장자에 대해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의 문제해결능력(6문항)은 문제나 위기 발생 시 가족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건강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에 의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7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과 홍영수(200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지지원별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오순옥(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되어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원을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로 구분하였다. 이들 지지의 내용은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애정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존심을 고양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25문항 중 제거된 문항은 없었으며,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각각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 변량의 58.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담임교사의 지지 .97, 친한 친구의 지지 .95로 나타났다.

### 4)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Atsushi 등(200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민동일(2007)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민동일(2007)은 공통 요인분석을 이용해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인 3개 요인을 지정하였다.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7문항)은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도전과 의욕, 다양한 관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긍정적 미래지향성(6문항)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희망, 미래의 목표에 대한 노력과 관심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감정조절(8문항)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내와 대처, 분노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조절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자아탄력성 전체 및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85, 긍정적 미래지향성 .85, 감정조절 .78이며, 자아탄력성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 를 산출해 신뢰도를 살펴보고 요인분석을 이용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기질과 가족의 건강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질과 가족의 건강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기질, 가족의 건강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일 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위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기질은 Likert 4점 척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 지, 자아탄력성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기질에서는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 중 지속성( $t=2.28, p<.05$ )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에 비해 한 가 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고 다른 것으로의 주의이동이 어려운 성향이 더 많았다. 가족의 건강성은 남학생집단의 평균이 3.32 점( $SD=.71$ ), 여학생집단의 평균이 3.31점( $SD=.70$ )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남학생집단( $M=3.27, SD=.79$ )은 여학생 집단( $M=3.07, SD=.77$ )에 비해 담임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 했고, 여학생집단( $M=3.74, SD=.58$ )은 남학생집단( $M=3.61, SD=.57$ )에 비해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t-검증 결과, 담임교사의 지지( $t=2.70, p<.01$ )와 친한 친구의 지지( $t=-2.27, p<.05$ )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남학생집단에서 여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다( $t=2.08, p<.05$ ). 반면 하위요인에서는 감정 조절( $t=4.03, p<.001$ )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가족건강성, 사 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에서는, 기질의 지속성과 사회적 지지 의 담임교사의 지지 그리고 자아탄력성 전체와 자아탄력성 중 감정조절에서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친한 친구의 지지에서는 여학생집단이 남학생집 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 성의 관계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자아탄력성 전체는 기질 의 지속성과 활동성,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기질의 경직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관련성의 크기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 는 것은 기질의 활동성이었으며, 가족건강성, 기질의 지속성,

<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 평균 비교

분류	성별	남 (N=216)		여 (N=234)		계 (N=450)		t
		M	SD	M	SD	M	SD	
기질	경직성	2.17	.40	2.11	.42	2.14	.41	1.54
	지속성	2.62	.42	2.54	.38	2.58	.40	2.28*
	활동성	3.01	.41	3.05	.40	3.03	.40	-1.28
가족건강성		3.32	.71	3.31	.70	3.31	.71	.23
사회적지지	담임교사	3.27	.79	3.07	.77	3.17	.79	2.70**
	친한 친구	3.61	.57	3.74	.58	3.68	.58	-2.27*
	전체	3.44	.57	3.40	.53	3.42	.55	0.73
자아 탄력성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3.78	.67	3.73	.72	3.75	.70	0.81
	긍정적 미래지향성	3.73	.81	3.72	.76	3.72	.78	0.11
	감정조절	3.38	.64	3.14	.58	3.26	.62	4.03***
	전체	3.61	.57	3.50	.53	3.55	.55	2.08*

\*  $p<.05$ , \*\*  $p<.01$ , \*\*\*  $p<.001$ .



〈표 3〉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		담임교사	친한친구
자아탄력성 전체	-.32***	.39***	.46***	.43***	.26***	.36***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26***	.25***	.52***	.29***	.19***	.32***
긍정적 미래지향성	-.23***	.30***	.42***	.44***	.21***	.32***
감정조절	-.27***	.39***	.18***	.31***	.22***	.24***

\*\*\* p<.001.

친한 친구의 지지, 기질의 경직성, 담임교사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가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남 1, 여 0). 또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피기 위해 분산팽창인수(VIF)의 값과 공차한계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1.0에 근접하며, VIF는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변량의 약 43%를 설명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경직성은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별, 기질의 지속성과 활동성, 가족건강성, 담임교사의 지지와 친한 친구의 지지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기질의 활동성( $\beta=.33,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지속성( $\beta=.24, p<.001$ ), 가족건강성( $\beta=.17, p<.001$ ), 경직성( $\beta=-.14, p<.001$ ) 순이었으며 성별( $\beta=.10, p<.01$ )과 담임교사의 지지( $\beta=.10, p<.05$ ), 친한 친구

〈표 4〉 청소년의 성별과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이 자아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하위변인	자아탄력성		
			B	$\beta$	t
성별			.11	.10	2.66**
기질		경직성	-.19	-.14	-3.83***
		지속성	.33	.24	6.30***
		활동성	.45	.33	8.34***
가족건강성			.14	.17	4.21***
사회적 지지		담임교사의 지지	.07	.10	2.58*
		친한 친구의 지지	.09	.10	2.30*
		상수	.69		2.61**
		$R^2$ (Adjusted $R^2$ )	.434	(.426)	
		F	48.51***		

\* p<.05, \*\* p<.01, \*\*\* p<.001.

의 지지( $\beta=.10, p<.05$ )도 영향을 미쳤다. 즉,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수록, 긍정적이고 잘 웃을수록,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가족의 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될수록,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낮을수록,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받을수록,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변량의 약 35%를 설명하고, 긍정적 미래지향성 변량의 약 33%, 감정조절 변량의 약 27%를 설명했다.

먼저 자아탄력성의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질의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과 담임교사의 지지 및 친한 친구의 지지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에는 기질의 활동성( $\beta=.43,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지속성( $\beta=.14, p<.01$ ), 경직성( $\beta=-.11, p<.01$ ), 친한 친구의 지지( $\beta=.09, p<.05$ ), 담임교사의 지지( $\beta$

$=.08, p<.05$ )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잘 몰두하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명량할수록,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 미래지향성에는 기질 중 지속성과 활동성, 가족건강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별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미래지향성에는 기질의 활동성( $\beta=.30,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족건강성( $\beta=.26, p<.001$ ), 지속성( $\beta=.15,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지속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될수록,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감정조절에는 경직성이 유의미한 부적의 영향을 미쳤고, 성별과 지속성,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질의 활동성, 담임교사의 지지와 친한 친구의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의 감정조절에는 기질의 지속성( $\beta=.28,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경직성( $\beta=-.18, p<.001$ ), 성별( $\beta=.17, p<.001$ ), 가족건강성( $\beta=.12, p<.05$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은 한 가지 일에 잘 몰두할수록, 경직성이 낮을수록,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내나 분노, 부정적 감정에 대한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 중 담임교사의 지지는 세분화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

<표 5> 청소년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하위변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B	$\beta$	B	$\beta$	B	$\beta$	
성별	.08	.06	.01	.00	.21	.17***	
기질	경직성	-.18	-.11**	-.11	-.06	-.27	-.18***
	지속성	.24	.14**	.30	.15***	.44	.28***
	활동성	.74	.43***	.58	.30***	.09	.06
가족건강성	.05	.05	.29	.26***	.09	.12*	
사회적 지지	담임교사	.07	.08*	.07	.07	.07	.08
	친한 친구	.11	.09*	.07	.05	.09	.09
상수	.44		.05		1.46		
$R^2$	(Adjusted $R^2$ )						
	.345 (335)		.331 (.321)		.274 (.262)		
F	33.32***		31.31***		23.82***		

\*  $p<.05$ , \*\*  $p<.01$ , \*\*\*  $p<.001$ .

인 중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감정조절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며, 잘 웃는 기질을 보였다. 또한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관심, 지지 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보다는 친한 친구의 도움이나 이해, 수용, 사랑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도전과 의욕을 가지며,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에 비해 기질의 지속성이 높고, 담임교사에게서 애정이 있는 말과 행동, 이해와 수용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으며,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집단은 남학생집단에 비해 친한 친구에게서 조언과 도움, 이해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도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유연하게 반응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더 잘 인내하고 부정적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희경, 2005; 강희경, 2006; 권지혜, 2006)에서 자아탄력성이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와 관련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생애적인 특성인 기질을 제외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긴밀히 관련된 환경적 요인인 가족원과 담임교사의 노력이 요구되고 친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는 모두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질 중에서 활동성이 자아탄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질의 지속성과 경직성, 가족건강성, 그리고 성별과 사회적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적 요인인 기질은 자아탄력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기질과 자아효능감이 자아탄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권지혜, 2006)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이 성격을 이루는 기초적인 요인으로 성격적 특성과 밀접히 연관된 자아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인 가족건강성도 자아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의사소통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희경의 연구(2005)와 일치한다. 사회적 환경의 확대로 인한 담임교사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전히 청소년발달에 있어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활동이나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인 담임교사의 지지와 친한 친구의 지지도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강희경, 2006; 박지선, 2009; 이소영, 200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족·친구·교사의 지지 중에서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선행 연구(강희경,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지원체계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친한 친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

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질의 경직성이 낮고, 지속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담임교사 및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느낄수록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않을수록,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를 잘 할수록, 새로운 대상에 관심이 많고 명랑할수록, 그리고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도전과 의욕,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것에 대한 다양한 흥미와 관심이 청소년들의 기질에 의해 생성될 뿐 아니라 친한 친구나 담임교사의 자극에 의해서도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특히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질의 지속성과 활동성이 높고,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 가지 일에 몰두를 잘 할수록, 새로운 대상에 관심이 많고 명랑할수록,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할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미래의 목표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있어 기질과 함께 외부적 요소인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안선숙의 연구(2006)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가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청소년의 미래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끝으로, 기질의 경직성이 낮고 기질의 지속성과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감정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않을수록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잘 몰두할수록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할수록 그리고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내와 대처, 분노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조절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기질의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 가족건강성, 담임교사의 지지와 친한 친구의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아탄

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 모두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기질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지만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담임교사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이 활발하고, 지속적인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족건강성은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질의 지속성, 사회적 지지의 담임교사의 지지에서 남학생집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학생집단에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담임교사와의 친화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여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담임교사는 조언과 책임 있는 도움 등의 물질적 지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이해하며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학생들의 행동과 생각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친한 친구의 지지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친한 친구와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 자아탄력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친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배경변인을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아동이나 청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강희경 (2006).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대한가정학회지**, 44(11), 149-159.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혜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교현, 전점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2), 197-217.

김기영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선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benefit-finding)과의 관계 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입과워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5, 9-38.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경 (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수·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복,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연구**, 21, 153-172. 한양대학교 생활연구소.

남영옥, 김재한 (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연성, 현은민 (2009). 남녀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정관리학회지**, 27(1), 221-234.

박은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지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 (200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안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4), 765-778.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명희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현숙, 구분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안신숙 (2006). 가족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 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치료**, 13(3), 127-148.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오순옥 (2005).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휘 (2005). 청소년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2), 129-138.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

- 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수현 (199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 *연세 사회복지연구*, 3, 121-139.
- 유영주 (2006).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 문제와 전망. *여성가족생활연구*, 10, 51-75.
- 윤세은 (2000).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 감각과의 관계 -서울시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7). **아동의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0.
- 임은희, 남현주 (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23-48.
- 임지영 (2001).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예언 요인: 아동기질, 어머니의 우울 및 자녀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18(3), 569-592.
- 장휘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수 (2003).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지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1217-1222.
- Block, J. H., Bol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8-361.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mery, R., & Forehand, R. (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J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1987). Social support, stress,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MD.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B.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43-84). New York: McGraw-Hill.
- Garnezy, N. (1985). Stress 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Y: Pergamon Press.
- Johnson, J. G., Bromley, E., & McGeoch, P. G. (2005). Role of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sonality traits (pp. 209-221). In J. M. Oldham, J. M., A. E. Skodol, & D. S. Bender (Eds.), *The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Kaplan, H. B., Robbins, C., Martin, S.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 Kirby, L., Fraser, M.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 In M.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10-33.
- Larsen, H., Branje, S. J. T., Valk, I. E. van der, & Meeus, W. H. J. (2007). Friendship quality as a moderator between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s and maladjustment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549-558.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individuality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6, 218-226.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ndle, M.,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30.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사회적 요인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요인으로서 기질, 가족적 요인으로서 가족건강성, 사회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선택해, 이들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4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 빈도분석, 백분율, 기술통계,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표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기질의 지속성, 사회적 지지의 담임교사의 지지, 친한 친구의 지지, 자아탄력성 전체와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감정조절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기질의 지속성과 활동성,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기질의 경직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높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명랑할수록,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낮을수록,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수록,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 경직성, 지속성, 활동성, 가족건강성, 담임교사의 지지, 친한 친구의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집단이 여학생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낮고, 잘 집중하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명랑한 성향이 강할수록, 가족원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수록,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